

오랜 무관중 경기 끝...스탠드엔 조심스런 팬들의 응원

반갑다 스포츠...기지가 켜는 체육계

거리두기 기꺼이 준수...간식 먹는 재미는 포기 주짓수·태권도 등 피지컬 경기는 아직 못 열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10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일부 허용되었다. 지난 10월 28일 7시 광주 챔피언스 필드. KIA 타이거즈와 KT위즈의 대결, 응원을 하기 위해 광주와 전국에서 모인 관중들이 응원봉과 유니폼을 입고 응원단과 함께 응원을 펼친다. 하지만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 많다. 관중들은 두 자리 씩 띄어 앉아 빈자리가 많고 들리는 소리는 응원단장의 목소리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응원기뿐 욕성으로 하는 응원은 금지된다. 또한 관중석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고 작년보다 더 많은 경기장 스태프들 배치되어 있고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시에 바로 제재를 한다.

작년보다 흥과 즐거움은 떨어지지만 직접 경기를 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뻐하는 팬들도 많다.

이 날 가족과 함께 광주 챔피언스 필드를 찾은 KT위즈의 팬 신 모 씨(45)는 "가족들과 함께 KT위즈의 원정 경기 관람이 취미이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다시금 입장을 해서 기쁘다"며 코로나에도 훌륭한 방역으로 프로스포츠가 중단되지 않고 잘 대처해 관중 재입장에 대해 큰 기쁨을 표출하였다.

이렇게 프로스포츠는 팬들에게 단순한

운동경기, 공놀이가 아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희망이자 즐거움일 수도 있다.

리그 중단 및 파행은 결국 해당 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프로스포츠는 올 시즌 예정된 리그 일정과 경기 수에 따라 증계권료, 구장 광고료, 각종 스폰서 후원 비용 등이 집행된 상태다. 가뜰이나 리그 대부분의 일정을 무관중 경기로 치르며 매출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 사회 방방곡곡에서 다중이용시설, 집회 등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위기를 겪을 때도, 국내 프로스포츠계에는 경기 중, 경기장에서는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철저한 방역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는 생활체육과 체육인에게도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당시 국가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은 거의 다 연기하거나 폐지가 되었다. 또한 주짓수, 검도, 태권도 등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또한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인 야구, 조기축구 또한 누구의 제재는 없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그래프에 따라



10월 28일 KIA 대 KT의 경기가 열린 KIA챔피언스필드. 관중들은 두 자리씩 떨어져 앉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르내리지만 생활체육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 (25세)

는 사회인 야구 팀에 가입해 3년째 활약 중이었다. 김 씨는 "코로나로 몇 개월째 경기를 중단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 1단계로 하향하자 사회인 야구 팀 내에서 다시 경기를 잡아보자는 이야기가 팀원들에게서 나왔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

킨채 부분 마음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라고 하였다.

홍승현 학생기자

광주 북구 생활체육 축구대회 등 무사히 마쳐

생기 되찾는 생활체육

갑작스런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었지만 생활체육 여러 종목들은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 다중이용시설이 개방되고,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 집단 운동이 일부 허용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154여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 67개의 스포츠 클럽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들 중에는 양궁, 배구, 수영, 야구, 축구 등 평소 접하기 쉬운 체육활동부터 접하기 어려웠던 체육활동들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등 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 포진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또한 각 구의 체육회에서 '극복하자 코로나'라는 주제로 배구, 탁구, 요가, 축구, 수영,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해 집안에서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여파로 인해 미뤄 왔던 많은 생활체육대회가 안전수칙 1단계로 하향되면서 축구경기를 필두로 생활체육대회들이 개최할 예정이며 광주시 북구체육회는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제31회 광주시 북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지난 10월 25일 무사히 마무리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들도 있지만 올해 예정되었던 '제1회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지역체육인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있을 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 및 산책 등을 하는 시민들도 점차 늘어 풍암·점단 생활체육공원, 국제양궁장, 풍암·운전호수공원 등에서 운동을 실시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 이용객들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산책로 한쪽방향 이용 안내 등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다.

습통이 트인 곳은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타운,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야외체육시설을 개방하면서 운동을 못하고 있던 노인들도 생기를 되찾았다. 이들은 노인건강타운 산책로에서 산책을 즐기거나 게이트볼을 즐기는 등 코로나로 인해 억눌렸던 일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추세이다.

시민들은 실외활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김태호 학생기자

'8월의 악몽' 겪은 용봉배드민턴클럽 경기 중 마스크 착용, 쉴 때도 2m 유지

지난 8월 광주는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악몽을 겪었다. 신규감염자 안내문자가 빗발치고 선별진료소에 장사진이 이어질 때 광주시 북구의 한 배드민턴 클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바로 전남대체육관을 이용하는 '용봉배드민턴클럽'이다. 여러 차례 부탁을 드린 끝에 배드민턴 '용봉클럽'의 회장 최경수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의 정황은 클럽 회원의 지인이 금양오피스텔의 다단계 판매원과 접촉을 하였고 접촉한 클럽 회원이 체육관 내 휴식을 취하며 다른 회원과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 클럽 내 확진자는 10명 미만이며 나머지 회원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회원들은 자가격리를 한 후 대부분 전염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체육관은 9월까지 문을 닫았으며 10월 중순 다시금 사전 신청을 통해 체육관을 개방하였다.

사건 이전과는 다르게 전남대학교 측에서는 방역 수칙을 크게 강화하였고 따라서 회원들은 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휴식을 취할 때는 반드시 2M씩 간격을 두고 휴식을 취하며 음식물 반입은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본래 회원들은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나누는 일을 즐겼으며 휴식할 때도 입구 쪽에 비치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본래 용봉 클럽에서는 넓은 체육관의 이점을 활용하여 다른 클럽과의 대항전을 하며 교류를 쌓아갔으나 이제는 다른 클럽과의 교류나 입회를 일절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와 같은 다른 질병에 걸렸거나 몸이 불편한 회원에게는 클럽의 출석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출석의 제한 권고를 받더라도 입회비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클럽 회원들은 주로 북구에 사는 고령층이며 주변에 다른 클럽이 없기에 용봉 클럽을 자주 이용하며 학교 측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회장 최경수 씨는 "학교나 보건소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면 우리가 충분히 코로나를 비껴갈 수 있으며 회원들을 위해서 땀땀하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활동시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철저한 방역이 동반되어야 한다. 조철용 학생기자

벗고 마시고 쓰고 말해라

찰나의 순간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버리는 생활 속 습관 잠깐의 방심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